

2/17(목) 신명기 1-2장 그날의 일들

모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(1:37, 3:26).

신명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진입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4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며 전하는 모세의 권면(설교)입니다. 모세는 단지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할아버지로서(대상 23:15-17), 이스라엘에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선포했을 것입니다.

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생활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.

여호수아와 갈렙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할 것이지만(1:36,38), 출애굽, 40여년의 전말을 가장 잘 알려줄 사람은 모세입니다. 사건의 시작과 전개, 결말, 백성들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.

옛 세대는 이집트에서 산 경험이 있었습니다.

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<애굽 타령>을 한 게 문제였습니다. 새로운 세대는 거의 대부분을 <광야>에서 지냈습니다(민14:29-30, 신1:39). 앞으로 마주할 <가나안 생활>에서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. 모세는 이스라엘이 왜, 어떻게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가르칩니다. 해야 할 것과 경계할 것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며 당부합니다.

광야에서 출생하여 아동,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, 진영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내막을 잘 몰랐던 이들은 막연히 전해 듣고 기억하던 일들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. 나면서부터 들었던 조상들의 <하나님>,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 이제 <나의 하나님>으로 자리 잡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.

신명기는 매순간의 <새로운 세대>를 독자로 합니다. 성경말씀을 새로이 깨닫고 <나의 하나님>을 만나는 이들을 독자로 합니다.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비전으로 가슴 뛰는 사람들. 그래서 신명기는 <구약의 맥박>입니다(heartbeat of the Old Testament).^{*Wright}

나는 <그날의 일들>을 알고 있습니까?

- ❶ 성경 말씀에 담긴 사연과 의미를 새롭게 깨닫습니까?
- ❷ 아직까지 000의 하나님입니까, <나의 하나님>입니까?